

## 이정후 미국 진출 선언에 MLB.com “한국발 선풍”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후(24·키움)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공식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빅리그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MLB.com은 전날 ‘한국발 선풍(sensation)’이 MLB 팀에 날개 밑에 부는 바람이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이정후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메인 페이지에 내걸었다. 1990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로 뽑힌 ‘내 날개 밑에 부는 바람(Wind Beneath My Wings)’에서 따온 제목이다. 이 노래는 키움의 애칭이기도 한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1983년 발표된 적도 있다. 그만큼 세심하게 제목을 선정한 것이다.

‘바람’ 이야기를 꺼낸 건 별명 때문이다. MLB.com은



▲ 이정후 기사를 메인 페이지에 올린 MLB 홈페이지 화면. 사진=mlb.com 캡처

이정후는 전날 구단에 해외 무대 도전 의사를 전달했다. 이정후는 내년 시즌 종료 후 구단 허락 하에 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MLB에 진출할 수 있다.

“이정후의 아버지는 KBO리그의 레전드 선수 이종범(52)으로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라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라 불린다.”며 “이정후는 KBO리그에서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타자 중 통산 타율(0.342)이 가장 높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정후는 올해 627타석에서 볼넷을 66개 얻어내는 동안 삼진은 32번밖에 당하지 않았다.”면서 “많은 한국 출신 타자들이 MLB 무대에서 빅리그 투수들에게 고전했지만 이정후는 빼어난 선구안 덕에 MLB 무대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비옴보, NBA 연봉 통째로 기부



▲ 자국 콩고의 병원 설립을 위해 한 시즌 연봉 전부를 기부한 비스맥 비옴보. 사진=si.com

“한 명의 삶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피닉스 선즈 소속 빅맨 비스맥 비옴보(30, 203cm)는 최근 ‘NBA ON ESPN’ 출연해 시즌 연봉 전부를 기부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비옴보는 NBA에서 기부 천사로 유명한 선수다. NBA입성 후 무수히 많은 기부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한 시즌 연봉을 통으로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옴보는 2021-2022 시즌에 수령한 연봉 전액(151만 달러)을 자국 콩고의 병원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

비옴보는 “어릴적 아버지가 아프셨다.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집으로 갔는데 콩고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

비옴보는 또 “나는 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열망이 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한 환경을 고민했었는데, 이를 확장해서 생각하다보니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고민하게 되었다. 1명의 삶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옴보는 2016년에도 콩고 학교 설립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었고, 2020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 “김주형, 올해 가장 골프계를 놀라게 한 선수”

미국 골프채널이 올해 골프계를 ‘가장 놀라게 한 선수’로 김주형(20)을 꼽았다.

2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골프채널은 이날 연말 결산 기사를 통해 “김주형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카드 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세계랭킹 15위에 자리하고 있다.”며 “프레지던츠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 올해 골프계를 가장 놀라게 한 선수로 선정된 김주형. 사진=golftvchannel.com

승하며 ‘꿈의 무대’에 입성했다. 당시 세계랭킹이 130위였다.

그러더니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선 패트릭 캠틀레이(미국)를 누르고 2승을 거뒀다. PGA투어에서 21세 이전에 2승을 거둔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김주형이 두 번째였다. 골프채널은 “김주형은 얼음장처럼 냉정한 플레이를 펼치는 캠틀레이마저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선수”라고 전했다.

김주형은 올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각종 명단 상위권에 이름을 옮리고 있다. 앞서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골프계를 결산하며 김주형을 뉴스메이커 12위에 올리기도 했다. 임시 회원 자격으로 PGA투어 대회에 출전하던 김주형은 지난 8월 PGA투어 원정 챔피언십에서 우

골프채널은 ‘올해의 남자 선수’로는 캐머런 스미스(호주)를, ‘올해의 여자 선수’로는 호주 동포 이민지(26)를 꼽았다. 마스터스 등을 포함해 올해만 4승을 거둔 스코티 세플러(미국)는 올 시즌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벼락스타’로 이름을 올렸다.

##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외과  
CA 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 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경 (HMO Group : SMG, CENTER 환경)

###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 / 어지럼증 / 인연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뻣근한 통증 / 어깨가 안들이기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초기 갑진증)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영지, 디리, 빌바닥 및 빌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빌바닥, 빌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헌증상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유통증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